



지난 9일 오후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NC-기아 전. 기아 나지완이 4회초 머 리쪽으로 공이 날아오자 피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피하지 않는다

나지완, 몸쪽 승부 약점 시즌 사구 12개 공 피하려 자세 바꾸다 밸런스 잃을수도
“무섭지만 적극 승부해 부진 만회하겠다”

KIA 나지완이 두려움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 시즌을 보내면서 타자가 피해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사(死)구다. 운이 좋게 유니폼에 스쳐서 진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돌덩이 같은 야구공에 맞고 괴로운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KIA에서 유독 눈에 띄는 선수가 있다. 100사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지완이다. 나지완은 올 시즌에만 12개의 사구를 기록했다. 팀에서 이범호가 가장 많은 13개의 사구를 남겼지만 타석수로 따지면 나지완이 21.2타석, 이범호가 27.6타석에 한번 꼴로 야구공을 맞고 있는 것이다.

6월에는 18·19일 LG전에 이어 우천으로 취소된 20일을 빼고 19·21일 kt와의 경기까지 4연전 내내 사구에 시달렸다. 8월7일부터 9일까지 kt와 NC 투수들과의 싸움에서도 3경기 연속 사구를 남겼다. 7월22일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피가로의 공에 머리를 맞으면서 아찔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산 22번째 100사구에도 9개만을 남겨두고 있다. ‘사구’는 투수와 타자의 기싸움의 모습이기도 하다.

투수 출신의 조계현 수석코치는 “투수들은 잘 치는 타자들에게 대한 부담감이 있다. 중심타자들이 사구에 많이 맞는다. 투수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구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 방법이 있겠나. 사구가 나오기 전에 승부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약점 공략과 방어의 모습이기도 하다.

타석에서 공과의 싸움을 했던 홍세완 타격 코치는 “나지완이 몸쪽 승부에 약하기 때문에 투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을 몸쪽으로 붙이려고 하다 보니 사구가 나오게 된다. 또 공을 끝까지 보고 치는 유형의 경우에도 앞에 포인트를 두는 선수보다 대처가 늦다. 바깥쪽 승부를 생각하고 있을 경우에도 대처가 힘들다”고 말했다.

왼쪽 어깨를 홈플레이트 쪽으로 끌어와 치는 타격폼도 잦은 사구의 한 이유다. 그럼에도 나지완은 몸쪽 승부에서 물러날 수 없다.

선배 홍세완 코치는 “타자입장에서는 사구에 맞고 그 무서움 때문에 왼쪽 어깨를 열고 타석에 서는 등 밸런스를 잃는 경우가 많다. 이겨내야 한다”고 말했다.

나지완은 “내 약점이 몸쪽이다. 상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몸쪽 승부를 많이 한다. 공을 많이 맞다 보니 이제 공이 무섭기도 하다. 여기저기 멍이 들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타석에서 물러나게 되면 상대와의 싸움에서 지게 되는 것이다”며 “사구를 맞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려고 한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지만 타격감이 전반기보다 좋다. 부상은 조심해야겠지만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타석에서 승부를 하면서 앞선 부진을 만회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테임즈 ‘테풍’

KBO 첫 한 시즌 사이클링 히트 2번...타격 전관왕·40-40 넘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특급 용병 에릭 테임즈(29)가 한국 무대 2년째를 맞는 올 시즌에 타격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갈아치울 태세다.

테임즈는 지난 11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방문 경기에서 홈런과 3루타, 2루타, 단타 등 모든 종류의 안타를 때리는 사이클링 히트에 성공했다.

이로써 테임즈는 한국프로야구 역대 처음으로 한 시즌에 사이클링 히트를 2차례 달성한 선수로 이름을 남기게 됐다.

앞서 테임즈는 지난 4월 9일 광주 KIA 타이거즈전에서 한국프로야구 통산 17번째 사이클링 히트를 수립했다. 한국프로야구 통산 17번째, 18번째 사이클링 히트의 대기록이 테임즈 한 명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컨택트 능력에 장타력, 주력까지 겸비한 테임즈는 올 시즌 타격 전관왕을 정조준하고 있다.

테임즈는 이날까지 타율(0.383), 득점(102개), 출루율(0.496), 장타율(0.819)에서 모두 1위를 달리고 있다.

홈런(36개)과 타점(103개)은 모두 2위이고, 최다

안타(129개)는 3위, 도루(28개)는 5위로 타격 전 부문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홈런과 타점, 최다안타, 도루는 모두 선두와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타이틀에 도전할 만하다.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뛰고 있는 이대호가 롯데 자이언츠 시절인 2010년에 무시무시한 스윙을 보여주며 타격 7관왕에 오를 때도 누구도 깨기 어려운 대기록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나 현재 테임즈는 시즌 막판 페이스에 따라 전무후무한 8관왕까지 노려볼 수 있다.

특히 28도루를 기록 중인 테임즈는 한국프로야구에서 유례가 없는 40(홈런)-40(도루) 클럽 가입까지 넘보고 있다.

2013년 NC의 첫 외국인 타자로 영입돼 한국팬들과 만난 테임즈는 미국프로야구에서는 마이너리그를 오가는 등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한국프로야구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다.

올 시즌 절정의 기량을 펼치는 테임즈가 총작역에 다다를 즈음에는 어떤 대기록을 남길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강풍당당’ 메이저리거

강정호, 규정타석 진입

타율 0.293 NL 21위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마침내 규정타석에 진입했다. 이제 누구도 강정호의 기록 앞에 ‘타석 수가 부족하다’는 등의 단서를 달지 못한다.

강정호는 당당하게 기록 대 기록으로 메이저리거들과 경쟁할 수 있다.

강정호는 1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라이벌전에 5번타자 유격수로 선발출전해 4타석 4타수 1안타를 기록했다.

강정호는 1회초 2사 1·2루에서 상대 선발투수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의 시속 약 156km 직구를 밀어쳐 오른쪽 담장 상단을 때리는 2루타를 날리며 이날 경기의 선취점을 올렸다. 이어진 타석에서는 범타로 물러났다.

전날까지 337타석으로 규정타석(팀 경기수X3.1)에 1타석 부족했던 강정호는 이날 4타석에 들어서 규정타석(12일 현재 341타석)을 채웠다.

규정타석 진입은 강정호가 확실한 주전급 선수로 도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전 선수가 아니면 규정타석을 채우는 게 쉽지 않다. 12일까지 내셔널리그 15개 팀에서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는 강정호를 포함해 74명뿐이다.

각 구단에서 5명 내외만 규정타석을 채웠다는 의미다. 피츠버그에서도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는 6명이다.

강정호가 규정타석에 진입하면서 그가 만들어가는 기록이 더 빛을 발한다.

강정호는 이날 시즌 타율을 0.293으로 유지



했다. 한국시간으로 12일 낮 12시 기준으로 내셔널리그 규정타석을 채운 타자 중 21위고, 3루수와 유격수 중에는 4위다.

팀 기여도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WAR(Wins Above Replacement·대체선수 대비 승리 기여)을 살펴보면 강정호의 가치는 더 상승한다.

ESPN은 강정호의 WAR을 3.7로 측정했다. 대체 선수보다 팀에 3.7승을 더 안겼다는 의미다. /연합뉴스

“필이 변화구를 던지네”

덕아웃 T 특독

▲없는 대로 준비를 해야 하나요 = 포수 이흥구는 12일 배터리 나카무라 코치에 이어 김민호 수비 코치 앞에 섰다. 포수가 이흥구의 자리지만 1루수로도 종종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수 제작된 포켓이 없는 글러브를 끼고 이리저리 공을 쫓던 이흥구,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김기태 감독은 “없는 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캠프에서도 (다른 포지션에 대한) 연습들을 했다”며 전전 후 기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올 시즌 김 감독의 전략에 따라 내야수 김주형이 우익수, 필이 2루수로 등장하기도 했다.

▲변화구 던지네 = 환상의 콤비 김원섭과 필이다. 김원섭에게 필은 야구밖에 모르는 야구 잘하는 아끼는 후배다. 필에게도 김원섭은 따뜻하고 실력 있는 선배. 훈련 시간에도 둘이 호흡을 맞추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띈다.

12일에는 두 사람이 캐치볼 상대가 됐다. 공을 받던 김원섭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필이 변화구 실력을 선보인 것이다.

“우와 써클 체인지업? 변화구를 던지네”라면서 김원섭은 애뜻한 후배와 기분 좋은 캐치볼을 이어갔다.

▲그냥 뛰었어요 = 일단 뛰고 보는 김호영이다. 김호영은 지난 9일 NC와의 경기에서 2·3루 연속 도루에 이어 박찬호의 스쿼트 때 홈까지 파고들면서 ‘발실력’을 발휘했다.

김호영은 도루에 대한 상황 설명은 간단했다. “사인이 난 것은 아니다. 그냥 뛰었다”였다.

앞선 경기에서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던 자신을 향한 분노의 질주이기도 했다. 김호영은 “날이 더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며칠 날이 선선해지면서 컨디션이 좋아졌다”고 웃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